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전남 장애인 확대·노동력 착취 근절해야”

2014년 장애인 2명 ‘염전노예’ 시민 분노 점화

경찰 법의 사각지대 활동 강화해 재발 막아야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감금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의 관심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명 염전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을 하던 장애인 2명이 노동력 착취와 감금 등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사건이 새삼 화제다.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최근 공식 사과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과소하게 보호 했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4년도 염전노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경찰은 특별감찰을 통해서 염주와 경찰과의 유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별로 잘못된 것이 없다”며 염주와 염부의 문제로 봤

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의 특별감찰 결과는 올해 4월5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정부가 위 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의미는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경찰이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무조건 염전 주인 편을 들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장께서는 판결에 대해 국민께 어떤 의사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지역경찰들이 해

당되는 염전 상황을 일부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동안 비인간적이고 억울한 노동력 착취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사과를 드린다”며 “저희들이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이 위협에 빠졌을 때는 절대 과소하게 보호하지 않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잡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이 노동력 착취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허성은 기자



고흥군, 내달 9일까지 어르신 원에 체험활동

체험과 힐링 복합공간 활용

고흥군은 고흥 관내 노인요양 복지 시설의 12개소 14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기간 중 7일) 어르신 원에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원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원에 치유 프로그램은 다육식물을 이용하여 화분에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며, 식물과 흙을 만지는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원에체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원에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예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흥=한윤식 기자

장애인체전 위해 배운 수화로...김정숙 여사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

지난해 이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서울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에서 수어로 치사를 하고 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

운동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식.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단에 올라 양 손을 들어 수어(手語)로 이 같은 격려사

를 시작했다.

김 여사는 이번 장애인체전 개최식 참석을 앞두고 격려사의 일부를 수어를 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직접 수어를 익혔다고 한다.

김 여사는 수어 인사에 이어 육성으로 “어떤 장애도 겪지 않는 ‘무장애 사회’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사회”라면서 “250만명의 장애인이 세상 속으로 나오는 길들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장애인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정부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총 150개소로 확충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장애인 체육 활동은 도전과 극복으로 누릴 수 있는 감동의 드라마가 아니라,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격려사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수어로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개최식에 참석한 서울 25

개 농아인지부 소속 농아인 250여명은 ‘수어 박수’로 화답했다.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38회 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전국장애인체전을 찾은 김 여사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하면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 장애인체전에 참석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개막식에 앞서 이번 체전에 최연소로 첫 출전한 이종구 육상 선수(17) 등과 대화를 나누고 격려했다. 시장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맞아, 개최식 입장 때는 이연승 시각장애인 골볼 선수를 직접 안내하며 함께 입장하기도 했다.

이날 개최식에는 마지드 라셰드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위원장 등 국내·외 초청 인사 800여명을 비롯, 각 시·도 선수단 1500여명, 일반 관람객 7000여명 등 총 만여명이 함께했다.

호남신문
전화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